

5천피 한달만에 새 역사...“8천피도 가능”

올들어 44% 수익률 글로벌 증시 압도적 1위

예탁금 108조...증권가, 연간 목표치 줄상향

코스피 6000 시대

코스피가 꿈의 지수라 불리던 '5천피' (코스피 5000p)를 넘어서 '6천피'를 달성하기까지는 불과 한 달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1000에서 2000이 되기까지는 18년 4개월 (1989년 3월 31일~2007년 7월 25일), 2000에서 3000이 되기까지는 13년 5개월 (2007년 7월 25일~2021년 1월 7일), 3000에서 4000이 되기까지는 4년 9개월 (2021년 1월 7일~2025년 10월 27일)이 걸렸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정치·경제 혼란 속에 정체 국면을 나타냈으나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내건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 거래일인 지난해 6월 2일 2698.97이었던 코스피는 같은 해 10월 27일 4000대를 돌파했다.

이후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대두되면서 미국 기술주가 주춤하자 코스피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연말 '산타 랠리'를 계기로 코스피는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일단 올라가기 시작한 코스피는 거침없이 질주했다.

새해 첫 거래일인 지난 1월 2일 4224.53으로 장을 연 코스피는 1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9일 종가 기준 4904.66가

지 치솟았다. 12거래일 연속 상승은 2019년 9월 4~24일 (13거래일) 다음으로 가장 긴 기록이었다.

1월 22일 코스피는 장중 5019.54까지 오르며 '꿈의 5천피'를 달성했다. 지수는 5000선 터치 후 상승세가 둔화해 4942.53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후인 같은 달 27일에는 5084.85에 장을 마감해 증가 기준으로도 5000선을 넘어섰다.

코스피는 꿈의 지수를 찍은 후 오히려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종가 기준 5000선을 넘어선 지난 1월 27일 이후 이날까지 코스피가 전장 대비 하락한 날은 4일에 불과했다.

이달 들어서는 코스피가 급등락하는 '볼리코스트' 장세도 나타났다.

지난 2일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 정지(사이트카)가 발동된 데 이어 다음날인 3일 매수 사이트카, 6일 다시 매도 사이트카가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의 뜨거운 열기는 코스닥 시장으로도 번지면서 지난 19일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사이트카가 발동됐다.

뜨거운 투자 열기 속 코스피는 지난 19일부터 5일 연속 상승하며 이날 개장과 함께 6000선을 돌파했고, 전날보다 114.22p (1.91%) 오른 6083.86에 장을 마쳤다.

5000에서 6000으로 1000p가 오르기가 걸린 기간은 불과 한 달 남짓이다.

코스피는 연초 이후 44%가량 올라 20% 남짓의 상승률을 보인 튀르키예와 대만,

노무라	8,000
하나증권	7,870
현대차증권	7,500
JP모건	7,500
NH투자증권	7,300
키움증권	7,300
한국투자증권	7,250
씨티그룹	7,000
유엔투자증권	6,300
대신증권	5,800

브라질, 태국 등을 제치고 압도적인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다. 25% 넘게 상승한 코스닥도 2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코스피는 76% 올라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큰 폭으로 따돌리고 1위를 기록했다.

거래소는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와 실적 호조로 전기·전자 업종이 증시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지정학적 위기에 방산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발전 설비 수출이 가시화되며 조선·원전(기계·장비), 건설 업종도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또 "금융·증권·보험 업종은 배당 기대와 거래대금 증가, 예탁금 확대 등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증시 상승을 뒷받침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을 돌파해 거래를 마친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백남

고 평가했다.

역대급 '불장'이 그동안 주식시장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시장으로 불러 모으며 증시 자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잔금의 총액이 증시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지정학적 위기에 방산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발전 설비 수출이 가시화되며 조선·원전(기계·장비), 건설 업종도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린 뒤 값지 않은 금액인 신용거래대출 잔고는 지난달 29일 처음 30조원을 넘었고, 지난 24일에는 31조9602억원까지 증가했다.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지난달 28일 처

음으로 1억개를 넘어섰고 지난 24일에는 1억180만3688개로 숫자가 더욱 불었다.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예탁 자산이 10만 원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거래가 이뤄진 위탁매매 계좌 및 증권저축계좌를 말한다.

한국 인구가 약 500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1명당 주식거래 계좌를 2개 이상 보유한 셈이다.

코스피의 급등 랠리에 증권가는 올해 예상치를 다시 올려잡고 있다.

키움증권은 최근 올해 코스피 예상 상단을 기준 6000에서 7300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로 최대 8000을 제시했다.

신디 박·이동민 연구원은 "상법 개정의 실질적 이행,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개선, 주주권 보호의 후퇴 방지가 답보된다면 코스피가 8000선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거래소는 "업종 전반의 실적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효과가 이어질 경우 상승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은 경계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신협중앙회, '지역별 이사제' 첫 도입...현장 목소리 반영

53차 정기 대의원회 개최
15개 시·도 단위 대표 선출

신협중앙회는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53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열린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중앙회 이사 선출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신협법 및 신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이사제'가 처음 도입·적용된 자리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6회계연도 회비 및 IT'분담금·IT기부 부과(안)도 함께 결정하고, 전문이사와 지역별 이사 선출을 진행했다.

그간 신협중앙회 선출이사는 전국을 1개 구역으로 하여 13명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해 왔다. 다만 전국단위 선출 구



신협중앙회는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53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로는 특정 지역의 의견을 중앙회 의사 결정에 상시적으로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협은 신협법 제71조의2에 근거해 선출이사 선출 체계를 '시·도 단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선출이사는 전국 15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에서 1인씩 총 15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임원 정원 확대에 맞춰 전문이사

선출 인원에 함께 확대되는 구조다.

지역별 이사 선출 결과, 서울 방계역(대방신협), 부산 여태면(송도신협), 울산경남 유운하(울산행복신협), 인천 박태선(인천항신협), 경기전천구(이천신협), 대구 최영훈(대구대서신협), 경북 하상근(경북오천신협), 대전 임성일(대전은누리신협), 충남윤여경(화지산신협), 광주 이육구(충흥신협), 전남 문

경환(강진신협), 충북노원호(청주남부신협), 전북 양춘제(전주파티마신협), 강원 이도식(원주밤음신협), 제주 강정신(한라신협) 이사가 각각 선출됐다. 전문이사로는 김학산(울분신협 전 이사장·현 중앙회 이사)이 선출됐다.

대의원회에서는 서민금융 및 신협 발전에 기여한 우수 임직원과 조합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승호 기자

서비스를 뒀다.

1회 재확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도 두텁게 보장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은행·상호금융·카드 등 금융회사 57개사가 등이 우선 참여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전산 개발 완료 시 각각 5개사, 39개사가 추가돼 총 114개사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가 추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TF도 고공행진...순자산 374조

지난달 초 300조 돌파
국장 추종 종목이 주도

'코스피 6000 시대'에 들어서며 국내 증시 끝 모를 집주를 이어가면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도 순자산 370조원대를 넘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5일 금융정보업체 연암인포맥스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순자산 총액은 약 374조3611억원으로 집계됐다. ETF 시장은 국내 증시가 '불장'을 달리면서 지난달 6일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약 한 달 뒤인 지난 4일 350조원까지 뚫으며 급격히 불어났다.

국내 ETF 시장은 2002년 10월 코스피 200 지수를 토대로 한 상품 4종(순자산 총액 3552억원)이 출시되면서 첫발을 땀 뒤 2023년 6월 순자산 100조원, 2025년 6월 200조원을 돌파한 뒤 그로부터 7개월 만에 300조원 선도 뚫었다.

ETF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국장을 추종하는 종목이 주도했기에 가능했다. 연초부터 순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ETF 종목은 국내 최대 규모의 코스닥 관련 ETF(레버리지형 제외)인 'KODEX 코스닥150'였다. 연초부터 5조6000억가량 넘게 불어났고 이 기간 증가율은 무려 342.1%에 달한다.

같은 기간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200의 순자산도 엇비슷한 수준인 5조5000억원 이상이 늘어났다.

연초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ETF도 코스닥 종목이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약 1조7000억원)였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코스피보다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판단 아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된 것

으로 풀이된다.

작년 한 해 개인 순매수 명단 1위를 차지했던 'TIGER 미국S&P500'은 3위(1조3000억원)로 밀려났다.

KODEX 200 순매수세도 1조2000억원을 돌파해 4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미국 증시를 추종하는 ETF 종목이 개인 투자자의 매수명단 상위권을 줄줄이 꿰찼지만, 해가 바뀌고는 국장 관련 종목이 석권했다.

작년 개인 순매수 리스트를 보면 1위 TIGER 미국 S&P500(3조6387억원)에 이어 KODEX 미국S&P500(3위·1조7866억원), KODEX 미국나스닥100(4위·1조5315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재 기준 순자산이 제일 많은 종목은 KODEX 200으로 이날로 18순위 선을 넘어섰다.

그 다음으로 미국 대표지수인 S&P500에 투자하는 TIGER 미국S&P500이 약 14조6000억원의 순자산을 나타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국내 ETF 중 순자산이 가장 많았던 TIGER 미국S&P500은 지난달 28일 KODEX 200에 양좌를 내줬다. 이후 두 상품의 순자산 격차는 점차 확대됐다.

이 밖에 KODEX CD글로벌테크(합성), KODEX 미국S&P500, TIGER 미국 나스닥100 등이 순자산 약 8조원대 규모로 집계돼 상위권에 올랐다.

운용사별로는 삼성자산운용이 순자산 151조원 규모로 4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18조원 순자산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30조)과 KB자산운용(25조)은 3. 4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신한자산운용(15조)에 이어 한화자산운용도 이날 기준 순자산 11조원을 넘어 서면서 '10조원 클럽'에 입성했다.

연합뉴스

AI가 대신 대출금리 깎아준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시행

AI 에이전트가 소비자를 대신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26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

규 지정한 바 있다.

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승 등을 파악해 금리인하요구를 대신 신청해 주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한다.

소비는 1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최초 1회 선택 후 자신을 연결하고, 보유 대출계좌를 선택한 다음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최대 월 1회 정기 신청하거나, 소득 상승 등 인하요구 가능 사유가 발견될 때마다 신청한다.

만약 요구가 거절된다면 구체적인 불응 사유를 파악해 추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주기도 한다. 금리인하요구 대행에 관한 동의 의사를 연

1회 재확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도 두텁게 보장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은행·상호금융·카드 등 금융회사 57개사가 등이 우선 참여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전산 개발 완료 시 각각 5개사, 39개사가 추가돼 총 114개사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가 추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